

2020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 일 자 : 2020. 1. 15.(수)
- ▷ 참 석 : 7명(전체위원 7명)
- ▷ 심의결과 : 원안가결



강원도립대학교
GANGWON STATE UNIVERSITY

발언 주요 내용

간 사	2020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제안 설명 ● 등록금(수업료) 2019년 수준으로 동결 책정(안) ● 연간 평균등록금은 2,208.51천원→2,277.31천원으로 68.8천원 인상(인상요인: 학과 계열변동 및 전체 입학정원 감소) ⇒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도, 정보공시 상 모든 계열별 평균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봄(근거: 2020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을 산정방법 공고, 교육부)
위원장(전찬환)	매년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대학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학과개편 및 정원 감소 등 등록금 인상 요인의 가중에도 불구하고 명목 등록금은 지속적으로 인하 및 동결하여 왔음. 또한 우리 대학의 등록금은 전국 도립대학 등록금의 평균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타 전문대학과 비교해서도 낮은 등록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간사의 제안 설명대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2020학년도 수업료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공립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
김래영 위원	대학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명목 등록금을 동결하는 취지는 고무적으로 평가됨. 도립대학의 등록금은 타대학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대학으로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에 앞장서는 자세는 바람직하다고 평가됨. 하지만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 뿐 아니라 학생들의 향후 진로에 대한 대학 발전계획을 건설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인재육성기관으로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위원(최근상)	각종 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비 환원률 10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대학의 교육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수업료 동결에 따른 부족 예산은 소모성 경비 편성을 지양하고, 국가장학금으로 자체수입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 지원금의 확보에도 주력해야 함.
부위원장(박옥연)	명목등록금은 동결되었지만 학과개편 및 정원 감소 등으로 인해 평균 등록금은 인상되었음. 교육부 등록금 산정방법 공고에 따라 계열별 평균등록금이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등록금은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 확보를 위해 대학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대학이 처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더 나은 지역인재 양성 산실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기 위하여 등록금 동결 및 인하정책은 유지되어야 함.
위원장(전찬환)	2020학년도 명목등록금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

위원장 (총 장)

전 찬 환

7.2 전 찬 환

부위원장 (교학처장)

박 옥 연

박 옥 연

위 원 (사무국장)

최 근 상

최 근 상